

GS칼텍스, 하우톤 인수 검토

하우톤이 최근 인수제안서 보내와 ... 구체적 사항 미확정

GS그룹(회장 허창수)이 미국의 공업용 윤활유 생산기업 하우톤 인터내셔널(Houghton International)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GS칼텍스 관계자는 8월8일 “하우톤이 최근 GS에너지 등 일부 관계기업에 인수제안서를 보내와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수시기나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GS에너지는 GS의 자회사이자 GS칼텍스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사업 전문 지주회사이다.

1865년 설립된 하우톤은 금속가공·자동차·항공용 윤활유와 유압액 생산기업으로 2012년 초 매물로 나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8/09>